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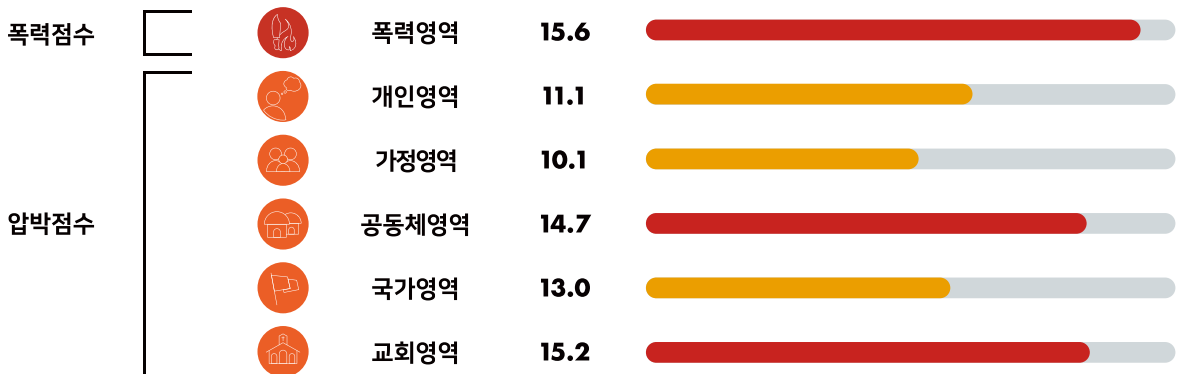
말리 (MALI)

기독교 박해지수
14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말리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 많은 지역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폭력적 성향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기존의 북부 거점 지역을 넘어 남부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2년 교회 파괴와 신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기독교 공동체는 현재 더욱 심각하고 불안정한 처지에 놓였다. 말리의 국가 제도와 행정 체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권력 공백은 지하디스트(이슬람 무장세력)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도 활동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폭력과 납치 등의 위협이 일상이 되었다. 무너진 안보 체계는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가족과 공동체의 압력은 최근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과 질서의 붕괴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개종자들을 향한 폭력과 위협을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감행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말리 (MALI)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시미 고이타 (임시)

인구 : 24,016,000 명

기독교인 수 : 542,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군사 정권)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542,000	2.3
무슬림	21,219,000	88.4
민족-종교주의자	2,223,000	9.3
불가지론자	28,900	0.1

출처²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온 이력과 수피즘(Sufism)의 완화적 영향과 더불어 비교적 관용적인 국가로 여겨졌던 말리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자유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12년 발생한 내전은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와 같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공백을 차지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이들 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북부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랑스군 철수와 말리 정부의 유엔 철수 요청 이후, 상

황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국제 평화유지군이 점차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로 비난받고 있는 이들의 존재는, 이미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아시미 고이타(Assimi Go ta) 부통령의 주도로 이끌어지고 있는 말리 정부는 지하디스트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납치, 무장 단체로의 강제 징집,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과 같은 암울한 현실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 교회가 운영하던 학교들 또한 폐쇄를 피할 수 없었고, 이는 지역 공동체의 포위된 듯한 위기의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6월, 군사 정부 하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헌정 질서와 민간 통치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리는 2023년 G5 사헬(G5 Sahel)에서 탈퇴하였고, 2024년 1월에는 서아프리카 국가경제공동체(ECOWAS)에서도 철수하였다.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현재 존재하는 국제 군사력, 바그너 그룹과 같은 외부 세력의 불분명한 역할, 그리고 정부의 부실한 통치 이력을 고려할 때, 말리 내 기독교인들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고 불확실하다.

이들의 고통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요 기독교 교파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수의 개신교 공동체는 주로 바마코(Bamako)와 같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교사와 같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말리의 기독교인 대다수가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북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일정 부분 이지만 남부에서도 집중적인 박해가 발생하는 소규모 지역들이 존재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외국인 기독교인 공동체들

말리에서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고립을 강요받지는 않지만 납치의 쉬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말리 인구 중 기독교인은 3% 미만이며, 이들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들은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비해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폭력 및 납치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주로 보조족(Bozo)과 도곤족(Dogon)이다. 대부분의 말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과 더불어,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다양한 수준의 압력을 받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주로 말리 남부에 분포한 은사주의 및 오순절계열의 공동체이다. 이들은 예배 방식과 전도 활동의 특성상, 일반 사회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말리에서의 온건주의 이슬람은 2012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와하비즘(Wahhabism)과 전 세계적인 이슬람 급진화 및 정치화 흐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슬람 세력은 북부 지역에 엄격한 샤리아 체제를 도입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 남부 말리에 있는 교회 역시 와하비 계열 단체들로부터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말리는 사헬(Sahel) 지역에 위치한 서아프리카 국가로, 넓은 사막 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 범죄 조직들은 서유럽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통로로 삼고 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정부 및 그 동맹 세력에게 패배한 투아레그(Tuareg) 반군 세력이었던 많은 이들이 무기, 마약, 인신 밀매와 같은 불법 거래에 의존하는 범죄 집단으로 변모했다.

씨족 억압

말리 인구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이들은 종종 부족적 전통 관습과 종교 신념을 혼합해 실천한다. 오지 지역의 많은 부족 또는 민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습에 반대하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종교인들과 부족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재적 편집증

정부 관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마지막 쿠데타 이후에는 독재 정권의 망상적 불신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억압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 보호나 안전을 추구하는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는 군사 정권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이 다시 거세지면서, 기독교 여성들은 납치와 강제 결혼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 소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이슬람 확산을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전술로 간주되며, 광범위하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특히 괴롭힘, 협박, 성적 학대,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해에까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혼 개종 여성은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기혼 개종 여성은 이혼을 강요받으며 자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가족에게 버림 받음으로서 보호망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이슬람식 복장 규정을 강제로 따라야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강제적인 종교 복장 착용
- 강제 결혼
- 강제퇴거 - 추방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말리 전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독교 남성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 위협과 폭력적인 신체 공격에 특히 노출되고 있다.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납치, 살해, 그리고 무장 단체(주로 지하디스트)에 의한 강제 징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가정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가족을 빈곤에 빠뜨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종자들은 사회적 배척, 고용 및 교육 기회의 축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결혼한 개종자의 경우 아내와 강제로 이혼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강제 이혼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또는 복무 강요
- 폭력-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4	80
2024	14	79
2023	17	76
2022	24	70
2021	28	67

말리는 WWL 2025에서 1점 상승하며 전체 점수가 올랐다. 이는 WWL 2024에서의 3점 상승, WWL 2023에서의 6점 상승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말리의 점수는 WWL 2021의 67점에서 WWL 2025의 80점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는 주로 전반적인 압박 수준의 심화에서 비롯되었으며, 폭력 항목은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15.0점을 초과했다. 국가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 특히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서방에 반감을 가진 부패하고 약화된 정부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을 외세와 연계된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의 연이은 군사 쿠데타는 국가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정부는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지하디스트 세력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계 민간 용병 바그너(Wagner) 그룹의 개입은 민간인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들 용병 부대는 현재 '아프리카 군단(Africa Corps)'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말리 군사 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 바그너(아프리카 군단)는 지하디스트에 대한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와 교회 영역 모두에서 극심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 공백은 조직범죄와 부패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말리의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극심한 폭력 수준:** 말리의 기독교인들은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계열의 지하디스트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직면해 있다.
- **파괴된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 파괴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신의 집에서 겨났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 당한 기독교인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납치된 기독교인	강간 및/또는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2025	47	53	100*	100*
2024	10*	10*	10	1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으로 인한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해야 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종자가 아니더라도, 말리 북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은 그들의 신앙이 알려질 경우 괴롭힘이나 폭력적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가족 영역

말리에서 지속되고 있는 군사 충돌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과 달리, 말리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와하비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실천하는 행위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폭력 보복의 대상이 되기 쉽다. 북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동들은 쿠란 수업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madrassa)로 전학 할 것을 요구받는다. 무슬림 가정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종자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공동체 영역

적대감과 폭력은 말리 북부에서 가장 극심하지만, 현재는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적대적인 종교 선동을 금지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이슬람 사원의 설교는 기독교인을 향한 반감을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다. 말리 중부 지역에서는 세속 국가의 법 체계와 명백히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에 샤리아법을 도입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기독교인들은 납치, 성폭행, 강제 결혼, 심지어 살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가 영역

말리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 국가이지만, 북부 지역의 무장세력은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정치적·사회적 대표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자주 받는다. 이러한 압박은 특히 말리 군대, 보안기관, 공공 의료 및 금융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기독교인, 특히 선교사의 신분으로 말리 내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최근 수년간 납치 및 살해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교회 영역

북부 지역에서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려는 기독교인들은 괴롭힘과 공격을 당해왔다. 더 나아가, 피난민들이 임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폭력의 위협 아래에서

강제로 중단되곤 한다.

이슬람 무장세력은 서방 비정부기구(NGO),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외국 정부와 연계된 군사 세력과의 접촉을 '선교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지역 공동체 지도자나 반군 단체는 기독교인의 인명 또는 재산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말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말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개종 사실이 드러나거나 단순히 의심만 받아도 현장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 6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 6조)
-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상징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이슬람으로 재개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ICCPR 제 7조 및 18조)
- 기독교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신앙 가치에 따라 양육할 수 없다 (ICCPR 제 18조 및 CRC 제 14조)
-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 18조 및 19조)

말리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기독교인 외에도, 말리에는 토착 신앙 체계를 따르는 종교 소수 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앙은 역사적으로 이슬람과 공존해 왔으나, 무장 이슬람 세력의 부상은 그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내 시아파 무슬림들 또한 차별을 겪고 있다.

오픈도어의 말리 사역

오픈도어는 2013년,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악용된 투아레그 반란 이후 말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오픈도어는 말리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박해 대비 훈련 및 지원
- 제자훈련 심화 프로그램
-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